

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
자유의지 지문 변형 자료

박영호(심프)

#2022. 09 자유의지 지문 변형 학습지(해설)

이 자료는 이번 9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자유의지 지문을 불친절하게 변형한 지문을 담고 있습니다. 변형된 지문으로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원본을 풀 때에 비해 까다롭게 느껴진다면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먼저 고민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학습지에 포함된 문제들에 답하면서 내가 어려워했던 포인트들이 문제에 있는지, 문제에 있다면 그 포인트를 실전에서 어떻게 잡아낼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이유로 지문을 그렇게 변형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설지에 함께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까다로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문을 변형할 때 여러 기출에서 쓰인 서술 방식을 다양하게 차용했습니다. 이 학습지로 공부하면서 3~4가지의 기출 지문을 떠올렸다면 정말 학습이 잘 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려워졌다는 점에만 주목하지 말고 이전 기출에서 출제된 포인트가 어떻게 녹아있는지까지 정확히 익혀, 평가원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습지를 통해 앞으로도 기출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읽어야 할지, 그 공부 방향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료 활용 순서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활용법

1. 변형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푼다.
2. 원본과 비교해보며 어떤 점에서 다르게 느껴지는지 체크한다. 어렵거나 까다롭게 느껴진 포인트가 있으면 반드시 체크하자.
3. 변형 지문을 분석하면서 자료에 있는 물음에 답해보자.
 - 3-1. 유사 기출 문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변형 지문에서 배운 포인트를 간단히 적용해보자.
4. 해설지를 읽고, 변형 의도와 유사 기출을 읽으면서 마무리한다.

자료와 관련된 질문이나 국어 상담은 오픈채팅으로 남겨주세요

*오픈채팅방 링크 : <https://open.kakao.com/o/sNhAVP0b>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변형_심프.Ver)

-2022.09 [10~13]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이면서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 되는 영혼이 있다.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①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중 딸기 우유를 선택할 때,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 보자. 이때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은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에 불과하다.

어떤 논증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비판할 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논증의 모든 과정의 허점을 찾을 필요는 없다. 그 논증이 주장하는 내용 중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비판하는 방식을 통해 그 논증이 도출해내는 결론을 지적할 수 있다. ② ㉠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은 이런 방식으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한다.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갑이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둘째, 갑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갑이 딸기 우유를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갑이 먹고 싶은 우유를 골랐다'는 ㉡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갑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

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갑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으로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③ 결국 ㉣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1. 1문단 마지막의 ㉠번 문장을 보고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 화제를 '자유의지'라는 키워드와 함께 정확히 잡아야 한다. ,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자유의지가 있다'로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자유의지의 정의)

*물음의 형식으로 문장이 제시된다면 그것은 화제를 제시하는 문장이다. (지문 뒷 부분에서 물음의 형식으로 된 문장을 제시한다면, 그 문단의 서술의 초점을 제시하는 문장이다)

*Tip) 왜 물음의 문장을 두 번 연속 주었는지 생각해보자.

→ 하나의 화제를 표현을 바꾸어 제시함.

2. 3문단의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 반자유의지 논증의 핵심은 '자유의지는 없다'는 말을 제시한다. 선결정과 무작위가 상호 배타적인 관계임을 파악했다면, 선결정되거나, 선결정되지 않거나 어떤 상황에서든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한다는 점을 생각해낼 수 있다.

2-1 실전이라면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3문단의 내용을 읽어야 할지 고민해보자.

→ 2문단 첫 번째 줄에 제시된 반자유의지 논증의 핵심을 파악한 후 사례와 함께, 두 가지 가정에서 모두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3. 4문단의 마지막의 ②번 문장을 읽고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 지문의 흐름을 예측해야 한다. 뒤에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22 예시문항 동일론&이원론)

4. 5문단의 핵심은 무엇인가?

→ 선결정 가정의 경우, 반자유의지 논증과 그것을 비판하는 입장의 주장이 같다.(둘 다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5.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정의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정의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자.

→ 사례를 통해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하도록 서술하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원하는 것을 행하는, 욕구//충족적//자유의지라는 점을 파악하는 것을 요구한다.

6. 지문에서 제시된 ‘갑’의 예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해 보고, 19.11 법률 효과 지문을 복습해보자.

→ 일정한 사례와 함께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19.11 법률 효과 지문에서도 갑과 을의 매매 계약 예시를 통해 ‘법률 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등 지문의 흐름과 예시가 함께 흘러간다. 이를 잘 파악해야 지문의 유기성과 더불어 내용 이해까지 쉽게 할 수 있었으므로, 이 변형 포인트를 읽을 때에도 같은 태도를 숙지해야 한다.

7. 원본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고, 원본에 비해 어렵게 느껴졌다면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스스로의 상황에 맞게 생각해 보자.

→ 자가 피드백

2022 예시문항 - 동일론&이원론 지문 전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이에 견취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원자나 엑스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원론자는 정신도 ㉡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는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를 것이다.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는 없으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의 면에서 단순하지만 그 차이라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다. 한편 데카르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력저력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 기계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

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든다.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 또렷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체와 정신 중 하나는 의심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하나는 갖지 않으므로 그 둘은 ㉤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 보자.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다산이 썼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과 다산이 ㉥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2022 예시문항 - 동일론&이원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①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이에 견줘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②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3. 위의 물음에 답한 후 다시 지문을 읽어보자. 위에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지문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는지 되짚어보자.

→ 자가 피드백

1. ①번 문장에서 물음의 형식으로 된 문장을 두 번 준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해보자.

→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정신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따지는 것은, 정신이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과 같은 말임을 파악해야 한다.

2. ②번 문장을 읽고 해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 화제가 구체화되는 문장이다. 정신의 존재 방식에 대해, 정신과 육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동일론)을 메인으로, 이원론을 비판하는 흐름으로 지문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즉,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동일론이 더욱 강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하며, ‘동일론 → 이원론’으로 흘러가는 비판 흐름도 잡아주는 것이 좋다. 실제로 이 태도가 지문을 이해하는 첫 단추가 된다.

2019.11 법률 효과 지문 전체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 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

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1. 이 지문은 하나의 예시가 끝까지 연결되면서 전개된다. 관련된 내용을 읽을 때 예시를 어떻게 읽었는지, 혹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 생각해보자.

→ 갑과 을의 매매 계약 예시를 통해 법률 행위와 그로 인한 법률 효과를 이해해야 한다. 이 지문은 특이하게 지문의 흐름과 예시의 스토리가 같이 전개되기 때문에 지문의 유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사례를 반드시 함께 떠올려주는 것이 좋다. 갑이 그림을 넘겨주지 않는 상황이나, 그림이 소실된 경우 등과 같은 문제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해결 방안 및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원본과 변형본 비교하기

#원본 1문단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만 있다고 해 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심프 ver. 1문단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이면서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 되는 영혼이 있다.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①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여기서는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갑의 예시를 뺐습니다.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만큼 어렵지도 않고 오히려 예시 때문에 지문 분량만 늘어나는 느낌이라 실제 수능이라면 이렇게까지 문장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두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자유의지'라는 핵심 키워드와 함께 화제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본 2문단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

#심프 ver. 2문단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도 역시나 마지막 문장을 뺐습니다.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이 나온 맥락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것을 반자유의지 논증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본 3문단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 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심프 Ver. 3문단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 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중 딸기 우유를 선택할 때,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 보자. 이때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은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에 불과하다.

원본에서는 1문단 마지막 줄에 제시된 예시를 3문단에서 반자유의지의 입장을 이해하는 맥락에서 처음 등장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예시를 통해 스스로 반자유의지 논증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자유의지'라는 키워드를 명시한 후 그것이 없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지웠습니다.

변형 지문에서도 앞부분에서 선결정 가정에서 '반자유의지 논증이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함을 명시해줬죠? 거기서 이미 2문단에서 제시된 반자유의지 논증의 핵심을 다시한 번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무작위로 일어나는 신경 사건에 불과하다'로 끝나더라도,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20.09 점유·소유와 22.06 과정 이론(가) 지문에서 사용된 서술 방식을 모티브 삼았습니다.

#20.09 점유·소유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여기서 '반환청구권 양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예시를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는 점에서는 점유개정과 공통적이지만, 직접점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죠. 직접점유자가 양도인인 경우에는 점유개정, 제3자일 때는 반환청구권 양도였어요. 하지만 반환청구권 양도에서는 점유개정처럼 직접 점유자가 누구인지 깔끔하게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점유개정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이해했던 바를 스스로 적용시켜서 반환청구권 양도의 예시를 읽어야 했던 것이죠.

#22.06 인과(과정 이론)

만약 교차에서 표지, 즉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가령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내는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했다.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될 수 있다. 즉, 바나나는 베어 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 하자.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 그런데 a'와 b'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과정 3과 교차했다고 하자.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티로폼은 그대로이다. 이처럼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과정 1·과정 2 예시와 과정 3·과정 4 예시가 제시됩니다. 각각 인과적 과정인 경우와 인과적 과정이 아닌 경우에 대한 예시이죠. 그런데 과정 1과 과정 2를 설명해줄 때는 '표지가 전달된다 = 인과적 과정'과 같은 핵심적인 포인트를 재진술로 명시해주는 반면 과정 3과 과정 4를 설명할 땐 상대적으로 불친절합니다. 재진술로 제시된 마지막 한 문장을 읽고, 인과적 과정의 핵심을 떠올리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원본 4문단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심프 Ver. 4문단

어떤 논증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비판할 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논증의 모든 과정의 허점을 찾을 필요는 없다. 그 논증이 주장하는 내용 중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비판하는 방식을 통해 그 논증이 도출해내는 결론을 지적할 수 있다. ㉡ ㉠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은 이런 방식으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한다.

문단 구성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흐름이 너무 단순해서 약간 헛갈리도록 22 예시문항 동일론&이원론 지문의 1문단을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해야하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논증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선결정 과정과 무작위 가정 두 경우 모두 고려하더라도 '자유지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중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비판한다'라는 흐름은 곧 앞서 살펴본 두 가지 가정의 포인트를 함께 떠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원본에서 떼먹여준 사고과정을 살짝 숨겨둔 것이죠. 그리고 ㉡번 문장을 읽으면서 다음 문단의 흐름을 예측해주시면 됩니다.

#원본 5문단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둘째,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

#심프 Ver. 5~6문단

감의 딸기 우유 선택이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감이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둘째, 감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감이 딸기 우유를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감이 먹고 싶은 우유를 골랐다'는 ㉠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감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

문단의 호흡을 끊고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흐름을 이해할 때 예시를 같이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원본에서는 예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듯했어요. 학습지에서 보셨듯이 이 부분은 19.11 법률 효과 지문을 참고했습니다.

원본에서는 '선결정되어 있을 때는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핵심 포인트가 너무 친절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변형 지문의 5문단을 보시면, '선결정되어 있다면 자

유의지의 두 번째 조건과 충돌한다'는 문장으로 문단이 마무리됩니다. 이 문장을 읽고 스스로 '자유의지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 선결정 가정인 경우에는 비판하는 입장도 자유의지가 없다고 보는구나!'와 같은 생각을 하셨어야 합니다. 상당히 불친절해졌죠.

그리고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제시하는 부분에서도 예시를 활용했고 직접적으로 정의를 주기 보다는 예시와 함께 그 부분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1.11 예약 지문을 참고했습니다.

#21.11 예약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약 완결권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시를 통해 스스로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지문입니다. 실제 예약 지문에 비해 난이도는 낮아서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태도 자체는 비슷합니다.

#원본 6문단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의 이러한 신경 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 보자.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으로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심프 Ver. 7문단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갑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으로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 결국 ㉠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크게 변형한 부분이 없습니다. ‘선결정되지 않는 것’을 ‘무작위’라는 키워드로 바꾸어 썼습니다. 원본에서는 무작위의 정의를 스스로 떠올리지 않아도 밑줄 친 문장에서 재진술해주는 것이 친절하니까요. 변형 지문을 읽을 땐 그걸 스스로 떠올리면서 읽었어야 합니다.